

포스코, 새로운 환경기준 시행 대비 고합금 스테인리스강 양산체제 구축

탈황설비용 강제 국산화 성공
납기 단축·안정적 소재 공급

포스코가 전 세계 선박에 대한 새로운 환경기준의 시행에 앞서 탈황설비에 필수적인 고합금 스테인리스강 양산체제를 갖추고 판매확대에 나섰다.

18일 포스코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IMO 2020'은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박 배출가스 환경 규제,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율을 현행 '3.5% 미만'에서 '0.5% 미만'으로 낮추거나, 이에 준하는 저감 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IMO 2020을 만족하는 방법으로는 탈황설비 설치, 저유황연료 사용, LNG연료 대체 등이 있다. 이 중 선박용 탈황설비는 고유황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을 90%가량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저가 고유황연료(HSFO)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올해부터 5년간 1만 2000척 이상의 선박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 품질, 생산, 연구소 등 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CFT(Cross Functional Team)를 만들고, 올해 초 탈황설비용 고합금 스테인리스강재인 'S31254'강 양산에 성공해 현대중공업과 위시스템, 강림중공업, STI 등 국내 탈



선박용 탈황설비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황설비 설계 및 제작사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탈황설비 강재는 통상 몰리브덴이 6% 이상 함유된 '6Mo(6몰리)'강을 사용하는데, 포스코가 개발한 'S31254'강 역시 6Mo강 중 하나로 포스코의 월드 톱프리미엄 제품이다.

지난해까지 탈황설비용 강재는 소수의 해외제철소에서만 생산되어 국내 고객들이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포스코가 국산화함으로써 8개월 이상의 긴 납기가 단축되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줄어 안정적인 소재 공급이 가능해졌다.

또 포스코는 고합금 스테인리스강재 사용 경험이 적은 고객들을 위해 용접 솔루션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는 선박 탈황설비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집진기 등 육상환경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는 'S31254'강 판매를 확대해 나아가갈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노사갈등·수주난... 현대중 '내우외환'

노조, 26일 4시간 부분파업 결정
사측, 조선산업 불황에 부담 커져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이 추석연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치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26일 4시간 부분파업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는 11월 새 노조집행부 선거 전까지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노조관계자는 "집중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면파업보다는 부분파업을 하면서 사측과의 의견 차이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19일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한다. 지난 5월 2일 노사 상견례 뒤 추석 전인 9월 10일까지 12차례 교섭을 가졌으나 성과는 없었다. 노

조는 교섭 마무리를 위해 회사에 일괄 제시안을 내라는 입장을 세웠지만 사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6.68% 인상과 성과급 최소 250% 보장,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앞서 단행한 법인분할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수용하기엔 조선 산업 불황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른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올해 수주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3개사(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는 수주 실적이 40.5% 급감하며 연간 수주목표인 159억 달러의 31.4%에 그쳤다.

/정연우 기자 ywi964@

SKB, 농아인 위한 방송서비스 시작

B tv 통해 '스마트 수어방송' 제공

SK브로드밴드는 취약계층 사회적 차별해소 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TV 시청 편의성 개선을 위해 인터넷 TV(IPTV) 사업자 최초로 농아인을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을 B tv 주력 셋톱박스에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 수어방송'은 시청자가 수어 영상의 크기, 위치 등을 자유롭게 조정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책사업에 SK브로드밴드가 IPTV 사업자 중 유일하게 참여해 지난 7월 첫 상용화 후 이번에 UHD, AI 등 주력 셋톱박스 전체에 탑재하게 됐다.

SK브로드밴드는 기획 단계부터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실사용자인 농아인의 의견을 수렴, UI·UX를 개선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화웨이 제재·갤노트 10 흥행까지 날개 단 삼성전자, 점유율 '쑥쑥'

수요 높은 중남미·중동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갤럭시폴드에 세계 관심도 ↑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저렴한 가격대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화웨이 제품을 대체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모습이다. 지난달 23일 출시된 '갤럭시노트10' 흥행과 함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폴드'로 폼팩터 혁신까지 이루면서 하반기 성장이 기대된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높은 중남미와 중동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중동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차지했다. 시장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삼성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전년 대비 8% 증가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화웨이의 점유율은 20%에 그쳤다. 카운터포인트 피터 리처드슨 애널리스트는 "삼성이 최근 출시한 A시리즈가 화웨이와 아너의 브랜드를 대체하면서 화웨이 제재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2분기 중남미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난 4월 국내에 출시된 '갤럭시 A30'. 출고는 34만 9800원이다. /삼성전자

기록하며 시장점유율 42.8%를 기록했다. 3위를 차지한 화웨이는 2분기가 시작될 당시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모토로라를 제치고 2위 자리를 차지했으나, 지난 5월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시작되면서 뒤로 밀려났다.

화웨이는 지난해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처음으로 애플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서면서 선두인 삼성전자와의 점유율 격차를 좁혀왔다. 하지만 지난 5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거래중단 제재 조치가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꺾였다.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년 대비 4.6% 성장하긴 했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3분기에는 타격이 더 분명해질 전망이다.

화웨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인 자국에서 성장률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분기

중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3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선두를 지켰다. 중국 시장에서 삼성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이달 말 5G를 상용화하는 중국 시장에서 5G 스마트폰으로 중국 소비자를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약세를 보였던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60만대를 출하해 점유율 9.8%로 2위를 기록했다. 샤오미(7.2%), 소니(7.0%) 등 일본 기업보다도 순위가 높다. 삼성은 이같은 성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마케팅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일본 도쿄에 전 세계 갤럭시 쇼케이스 중 최대 규모인 '갤럭시 하라주쿠'를 개관하며 일본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신제품 갤럭시노트10도 흥행하고 있다.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갤럭시노트10의 국내 판매량이 100만대를 기록했다. 출시 25일 만의 기록으로 역대 최단 기간이다.

갤럭시폴드에 대한 전세계 관심도 높다. 지난주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이트 이베이에서는 갤럭시 폴드 2대가 3900달러(약 463만원)에 거래됐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LG전자, '씽큐' 앱 앞세워 중동·아프리카 공략

브랜드샵 420㎡ 규모로 조성
체험존 통해 인공지능 가전 확인

LG전자가 'LG 씽큐'를 앞세워 중동과 아프리카 공략을 본격화한다.

LG전자는 12일 이집트 뉴카이로에 오픈한 브랜드샵에 'LG 씽큐 체험존'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브랜드샵은 뉴카이로 고급 주거지 인근에 420㎡ 규모로 조성됐다.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함이다.

LG전자는 2019년형 TV 음성 인식에 아랍어를 지원하며 중동 시장 공략을 선언한 바 있다. LG올레드 AI 씽큐



LG전자는 뉴카이로에 LG 씽큐 체험존을 열었다. /LG전자

와 LG 나노셀 AI 씽큐 등 제품이다. 체험존은 LG 시그니처 제품과 올레드 TV 등 프리미엄 제품을 확인하고, 'LG 씽큐' 앱을 통해 인공지능 가전을

직접 제어해볼 수 있다.

LG전자는 이집트를 시작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주요 국가별 핵심 상권에 체험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juk@

KT, '스마트 빔 패턴 동기화 기술' 세계최초 개발

하드웨어 구조 없이도 동기신호 추출

KT가 자체 기술을 통해 실내·지하의 5세대(5G) 이동통신 커버리지를 늘린다. KT는 5G RF 중계기의 성능·효율을 극대화한 '5G 스마트 빔 패턴 동기화 기술'을 상용화하고, 5G 인빌딩 커버리지 확대를 가속화해 나간다고 18일 밝혔다.

KT는 RF 중계기와 5G 기지국 간

동기화 과정에서 복잡한 전자부품이나 불필요한 하드웨어 구조 없이도 정확한 동기 신호 추출이 가능한 '스마트 빔 패턴 동기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RF 중계기에 상용 적용했다.

5G RF 중계기는 5G 전파가 도달하기 어려운 실내 중층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에 설치해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다. 대형 건물에 주로 설치되는 광중계기와 달리 광 전송라인 연결

없이 무선으로 5G 기지국과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하나의 장비에서 동시에 송신과 수신을 하기 위해 자원 분할을 통한 다중통신방식을 사용한다. 5G의 경우 일반적으로 TDD(시간 분할 방식)를 사용하고 있어 기지국과 RF 중계기 간의 통신을 위해 동기 신호 획득이 필수적이다.

/김나인 기자